

# 동서양의 차인(茶人)

한서대학교 서은주

---

1. 추사 김정희

---

2. 다산 정약용

---

3. 초의 정의순

---

4. 육우

---

5. 선리큐

---

6. 립톤백작

7. 맹사성

## 추사 (秋史) 김정희 (金正喜)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 금석학자, 고증학자이다.

본관은 경주, 호는 완당(阮堂) · 추사예당(禮堂) · 시암(詩庵) 등이다.

한국 금석학의 개조(開祖)로 여겨지며 한국과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만든 추사체가 있다. 그는 또한 난초를 잘 그렸다.



충남 예산에 있는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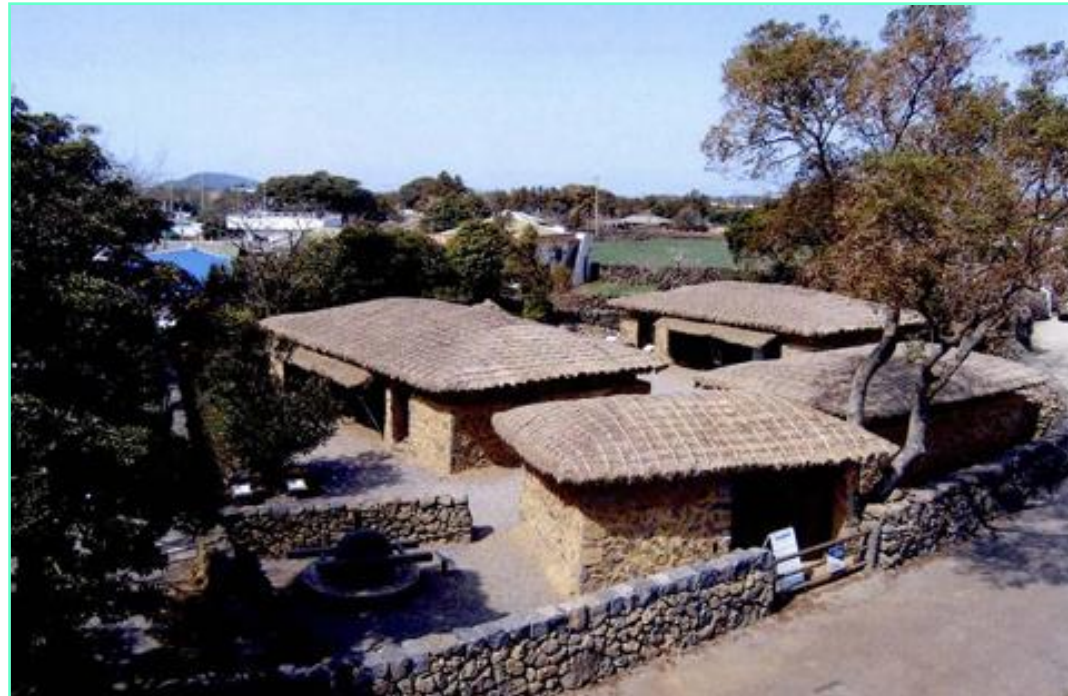


# 추사 (秋史) 김정희 (金正喜) 茶생활

- 순조5년인 20세 때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淸)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 연경(燕京:北京)에도 갔는데 이때 당대 거유(巨儒)로 명성을 떨치던 완원(阮元, 1764-1849), 옹방강(翁方綱), 조강(曹江) 등과 알게 되었고 아울러 茶생활의 진수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추사와 초의가 처음 만난 것은 이 무렵으로 1816년 전 후로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 정약용의 큰아들 ) 과 운포(耘浦) 정학유(丁學遊, 1786~ ,정약용의 둘째아들 ) 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 쌍계사 만허스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었다는 차를 얻자
- "그 절묘한 제다 솜씨, 용정 두강(頭綱)보다 낫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 추사의 茶생활은 중국에서 이미 영향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추사 적거지(秋史 謫居址.유배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가 1840년부터 9년간 유배생활을 하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잡은 사적 제487호인 추사 거적지.



謫:귀양 갈 적

추사는 자신이 기거한 초막에 굴중옥(橘中屋)이라는 당호를 붙이고 학문·예술 세계에 몰입했다. 추사는 이곳에서 추사체를 확립하고 세한도(국보 제180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인 1844년  
제자 이상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린  
'세한도(歲寒圖)'

세한도 (歲寒圖) 에는 ‘날씨가 차가워져 다른 나무가 시든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는 공자의 말과 함께 건물, 소나무 등이 그려져 있다.



# 추사의 茶詩는 대개 제주도유배지.

다반향초(茶半香初)

정좌처(靜坐處)

다반향초(茶半香初) 묘용시(妙用時)

수류화개(水流花開)

고요히 앉은 이곳

차는 반이 되고 향기는 여전하네

고요히 흐르는 시간에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 
- 

추사 김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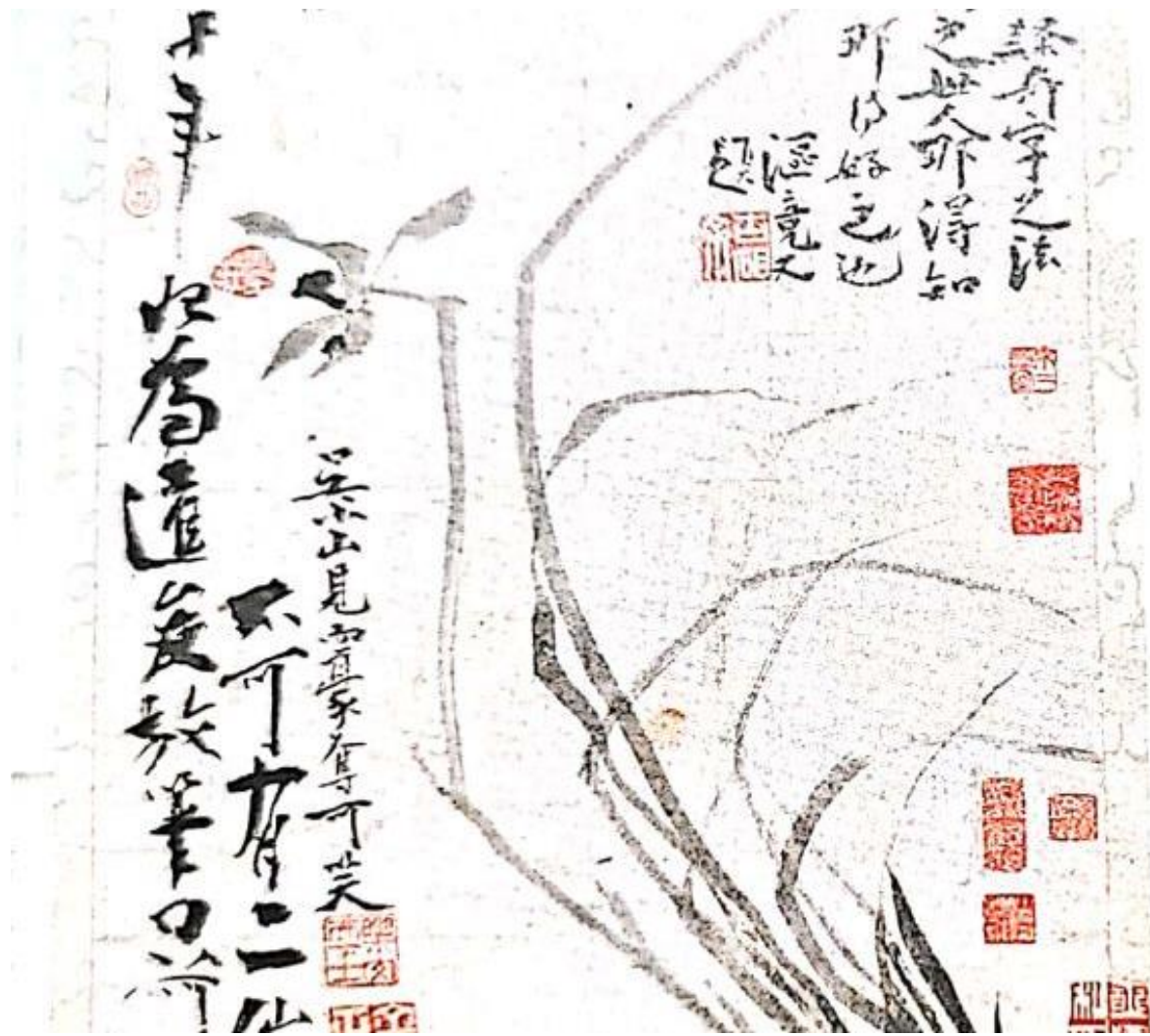
죽로지실 | 竹爐之室 |



「차를 끓이는 죽로(걸을 뜨겁지 않게 대나무로 감싸서 만든 화로)가 있는 방」이란 뜻이다.  
예서(隸書).

전서의 형을 살리어 그림을 피하는 듯하여 지나치게 교(巧)를 부린 작품이다. 추사의 글씨

「예



실 알 수 있으며, 화법을 따라 배워  
 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난초 그림은 초서(草書)와  
 예서(隸書)의 기자(奇字)의 법으로  
 그린 것으로, 파격을 넘어 불이선의  
 경지에 다다른 불계공졸(不計工拙)의  
 명화이다.





**월성위 김한신의 묘**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89호 |

추사 김정희, 초배(初配)인 한산이씨, 계배(繼配)인 예안이씨가 합장되어 있다. 묘에는 석상과 망주석 1쌍이 있고, 묘비는 1937년 9월에 세웠는데, 종인(宗人) 김승렬(金承烈)이 짓고 썼다.



**화순옹주 홍문**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5호 |

영의정 김흥경(金興慶)의 아들 월성위 김한신과 화순옹주(和順翁主)의 합장묘(合葬墓)이다. 묘에는 돌담장이 둘러있고,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 장명등 등의 묘석(墓石)을 구비하였다. 비문에는 영조의 어필(御筆)이 새겨져 있다.



정려문(旌閭門)은 추사선생의 증조모인 화순옹주(영조의 차녀)의 정절(貞節)을 기리고자 정조가 명정(命旌)한 열녀문(烈女門)이다. 화순옹주는 부군 월성위 김한신(1720~1758)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하자,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부왕

영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군을 따르고 말았다. 영조는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면서도



# •세한도

•◆세한도에 그려진 참 뜻은...

- '세한도에 날인된 인장의 글씨 장무상망(長毋相忘). '오래도록 잊지 말자'는 뜻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 추운 날이 되고 나서야 느낀 따뜻한 정. 추사 김정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어쩌면 이 그림은 추운 그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일지도 모른다.
-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라는 공자의 명언을 주제로 삼아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것이다.
- 추사에게 세한도를 선물받은 이상적은 뿔 듯이 기뻐하며 그림을 청나라로 가져가 청나라 학자에게 선보였다. 추사의 세한도를 보고 감동받은 청나라 학자 16명은 찬사의 글을 남겼다. 또 오세창, 정인보, 배관기 등 후대의 인물들도 찬사를 더했다.
- 그래서 세한도 그림은 폭 23cm이고 길이가 약 70cm인데, 왼쪽 부분에 붙은 발문의 길이는 무려 13m가 넘는다.
- 추사의 7년 유배지였던 제주에 가면 세한도의 그림과 같은 단출한 추사관을 만날 수 있다.

•◆세한도가 우리 곁에 있기까지의 풍파

- 세한도는 이상적 사후에 민씨 일가로 넘어갔다가 경성제국대학의 중국철학 교수로 고미술 수집가이자 완당 연구학자였던 '후지츠카 치카시(藤塚隣)'의 손에 들어갔다. '후지츠카'는 완당의 서화나 그에 대한 자료를 매우 많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서예가 손재형(孫在馨, 1902~1981)이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세한도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손재형이 세한도를 양도받고 난 석달 뒤인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으로 '후지츠카'의 서재가 모조리 불타버리면서 그가 수집한 완당의 수많은 작품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운명적으로 살아남은 작품이라고 하겠다.

## 2. 다산 정약용

- 정약용(丁若鏞, 1762년 8월 5일(1762년 음력 6월 16일) ~ 1836년 4월 7일(1836년 음력 2월 22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저술가·시인·철학자·과학자·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탁옹(籟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문암일인(門巖逸人), 당호는 여유당(與猶堂)이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1]
- 1762년 8월 5일(영조 38년 음력 6월 16일)에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재(마현(馬峴), 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정약용이 태어난 곳은 오늘날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이므로,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정약용이 남양주시 출신임을 지하철 광고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진주 목사를 지낸 부친 정재원에게서 학업하였다. 정재원은 첫 부인 의령 남씨와 사이에 큰아들 약현을 낳았고, 둘째 부인인 고산 윤선도의 오대손녀인 해남 윤씨 사이에 약전, 약중, 약용 3형제와 딸 한 명을 낳았으며, 약용은 넷째 아들이었다.

## 추사 (秋史) 김정희 (金正喜)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 금석학자, 고증학자이다.

본관은 경주, 호는 완당(阮堂)· 추사예당(禮堂)· 시암(詩庵)등이다.

한국 금석학의 개조(開祖)로 여겨지며 한국과 중국의 옛 비문을 보고 만든 추사체가 있다. 그는 또한 난초를 잘 그렸다.



충남 예산에 있는 고택



## 추사 (秋史) 김정희 (金正喜) 茶생활

순조5년인 20세 때에는 동지사(冬迨使)로 청(淸)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 연경(燕京:北京)에도 갔는데 이때 당대 거유(巨儒)로 명성을 떨치던 완원(阮元, 1764-1849), 옹방강(翁方綱), 조강(曹江) 등과 알게 되었고 아울러 茶생활의 진수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추사와 초의가 처음 만난 것은 이 무렵으로 1816년 전 후로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 정약용의 큰아들 ) 과 운포(耘浦) 정학유(丁學遊,,1786~ ,정약용의 둘째아들 ) 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쌍계사 만허스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었다는 차를 얻자 "그 절묘한 제다 솜씨, 용정 두강(頭綱)보다 낫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추사의 茶생활은 중국에서 이미 영향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추사 (秋史) 김정희 (金正喜) 茶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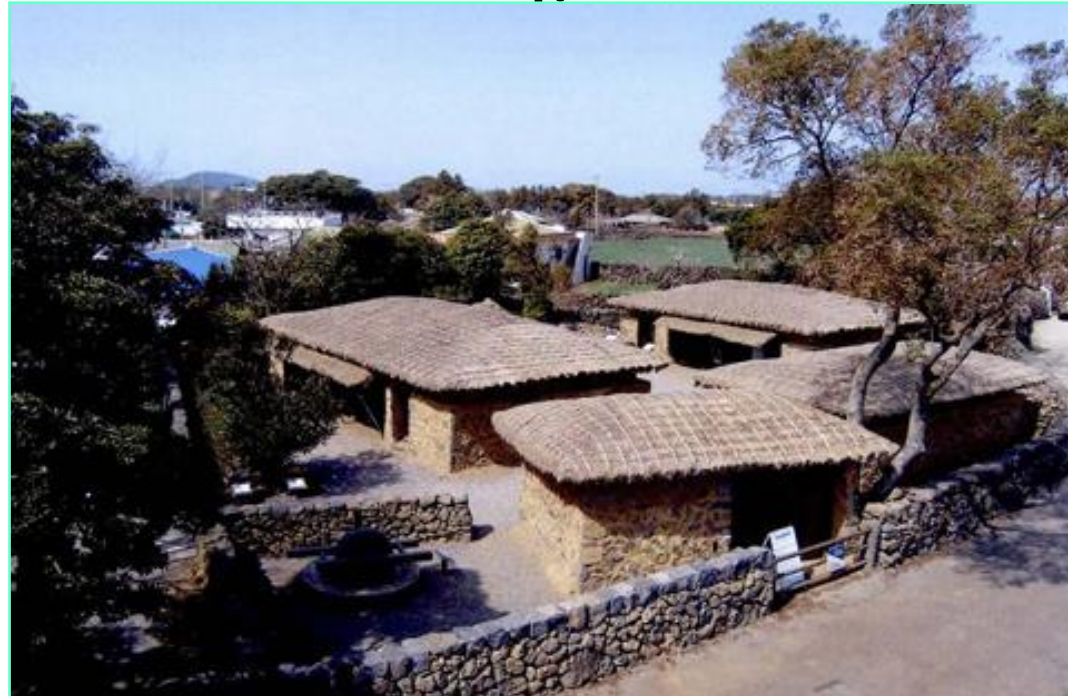
순조5년인 20세 때에는 동지사(冬迨使)로 청(淸)에 가는 아버지를 따라 연경(燕京:北京)에도 갔는데 이때 당대 거유(巨儒)로 명성을 떨치던 완원(阮元, 1764-1849), 옹방강(翁方綱), 조강(曹江) 등과 알게 되었고 아울러 茶생활의 진수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추사와 초의가 처음 만난 것은 이 무렵으로 1816년 전 후로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 정약용의 큰아들 ) 과 운포(耘浦) 정학유(丁學遊,,1786~ ,정약용의 둘째아들 ) 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쌍계사 만허스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었다는 차를 얻자 "그 절묘한 제다 솜씨, 용정 두강(頭綱)보다 낫네"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추사의 茶생활은 중국에서 이미 영향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추사 적거지(秋史 謫居址.유배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김정희(1786~1856)가 1840년부터 9년간 유배생활을 하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잡은 사적 제487호인 추사 거적지.



謫:귀양 갈 적

추사는 자신이 기거한 초막에 굴중옥(橘中屋)이라는 당호를 붙이고 학문·예술 세계에 몰입했다. 추사는 이곳에서 추사체를 확립하고 세한도(국보 제180호)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인 1844년  
제자 이상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린  
'세한도(歲寒圖)'

세한도 (歲寒圖) 에는 '날씨가 차가워져 다른 나무가 시든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는 공자의 말과 함께 건물, 소나무 등이 그려져 있다.

## 2) 다산초당 · 백련사 · 고성사

다산(茶山)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선생은 문장과 경학(經

學)에 뛰어난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로 1801년 강진에 유배

되어 18년여 동안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권의 방

대한 책을 저술하면서 실용적인 과학사상으로 이끌고자 하는

실학을 집대성한 곳이다.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28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병조참지, 형조참의 등을 지냈으며

1801년 신유사옥으로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 다산의 유배지

- 처음에는 강진 읍 동문 밖 주막과 고성사(高聲寺)의 보은산방, 제자 이학래 집 등에서 8년을 보낸 후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 해배(解配)되던 1818년여 년 동안 다산초당에서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을 하였으며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 다산(茶山)이 마신 茶는 떡차

- 2005년 7월 30일에 강진군이 개최한 '다산정약용선생유물특별전'에
- 선생의 친필 편지 한 통이 출품 되었다.
  
- 다산의 69세 나이 1830년에 강진 백운동 이대아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 떡차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 1. 차잎을 따다.
- 2. 삼중삼쇄, 즉 세번 찌서 세 번 별에 말린다.
- 3. 아주 가늘게 빻는다.
- 4. 돌샘물(石泉水)로 반죽한다.
- 6. 진흙처럼 완전히 뭉글어지게 찜는다.
- 6. 작은 떡으로 만든다.
  
- (곡우(4월20일) 일에 어린 잎을 따서 볶아 잎차를 1근을 만들고 입하(5월5일) 전에  
늦차를
- 따서 떡차 2근을 만든다.-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 중에서 :정민교수 茶자료에서  
발췌

### 3. 대흥사 일지암 초의선사(草衣禪師)

조선 후기, 본명은 장의순 (張意恂 1786~1866). 호는 초의(草衣).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해 **다성(茶聖)**으로 불리운다.  
15세에 출가하여 운흥사에서 스님이 되고 대흥사 완호  
스님으로 부터 '초의(草衣) 라는 법명을 받았다.

초의(草衣): 속세를 떠나 숨어 사는 사람의 의복.



-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해 다성(茶聖)으로 불리운다.
- 15세에 출가하여 운흥사에서 스님이 되고 대흥사 완호스님으로 부터 '초의(草衣) 라는 법명을 받았다.





-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해 다성(茶聖)으로 불리운다.
- 15세에 출가하여 운흥사에서 스님이 되고 대흥사 완호스님으로 부터 '초의(草衣) 라는 법명을 받았다.



## 『 동다송(東茶頌) 』

동다송의 송(訟)은 예찬의 노래를 말하는 것.

그는 다산으로부터 유학과 시학을 배우고 30세 때 유산 해거도인 등과 교류를 시작했으며 39세에 일지암을 짓고 차 문화의 터전을 닦았다.

52세에 동다송을 저술하였는데 동다송은 해거도인 홍현주의 부탁으로 저술된 것이다.

동다송은 초의 선사가 차의 모든 것을 풀어낸 칠언오구(七言五句)의 시로 모두 31구송으로 되어있다.

차의 기원과 차나무의 생김새, 차의 효능과 제다법, 중국의 고사와 전설, 우리나라 차의 우월성 등을 말하고 있다. 또 각 구에 주를 달아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초의선사는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에서 **다산 정약용, 혜장스님, 추사 김정희** 같은 당대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39세에 (1815) **일지암**을 중건하고 수행과 저술에 몰두하여 조선 후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고 명맥만 유지해오던 우리의 **차문화**를 **중흥**시켰다.

茶書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초의선사는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에서 다산 정약용, 혜장스님, 추사 김정희 같은 당대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39세에 (1815) 일지암을 중건하고 수행과 저술에 몰두하여 조선 후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고 명맥만 유지해오던 우리의 차문화를 중흥시켰다.

茶書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

『 동다송(東茶頌) 』

---

한국의 다경(茶經) 이라고 할 수 있는 茶의 전문서이다. 스님이 나이 52세(1837년) 되던 해 봄에 다도를 묻는 해거도인 홍현주에게 저술해서 보낸 것이다.

---

『 다신전(茶神傳) 』

---

차생활에 필요한 차의 지침서로서 스님이 43세 때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지내며 중국의 『만보전서』를 옮기기 시작하여 2년 후인 45세(1830년) 때에 정서해서 펴낸 것이다.

---

다신전은 스님의 완전한 창작이 아니고 『만보전서(萬寶全書)』를 옮겨 쓴 것으로 본래의 원전은 명의 장원(張源)이 쓴 『다록(茶錄)』이다.

# 초의선사 탄생지

무안군이 지난 1997년부터 추진한 초의선사 기념관 완공을 계기로 초의선사의 탄생일(음력 4월 5일)을 전후하여 이틀간 초의선사 탄생지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서 매년 열린다.

조선 후기 시詩, 서畫, 화畵, 다茶, 선禪 5절을 널리 추앙 받았던 초의선사의 탄생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행사이다.

초의 선사 생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 4. 육우

- 《다경》의 저자인 육우는 당 현종 시기의 저명한 은자로 시문, 문학, 유교의 경학, 인문지리인 지지(地志)뿐만 아니라 점복에도 밝았다. 생존 시기에 이미 차에 대해 일가견을 이루었다는 평을 받으면 다선(茶仙)으로 불렸으며 후대에는 다신(茶神)으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 『 다경(茶經) 』

- 『 다경(茶經) 』 당나라의 문인 육우(陸羽, 733~804년)가 쓴 다도(茶道) 최고의 고전. 3권. 760년경에 씌어졌다.

차의 제법, 끓이는법, 마시는 법, 기원, 산지, 다기(茶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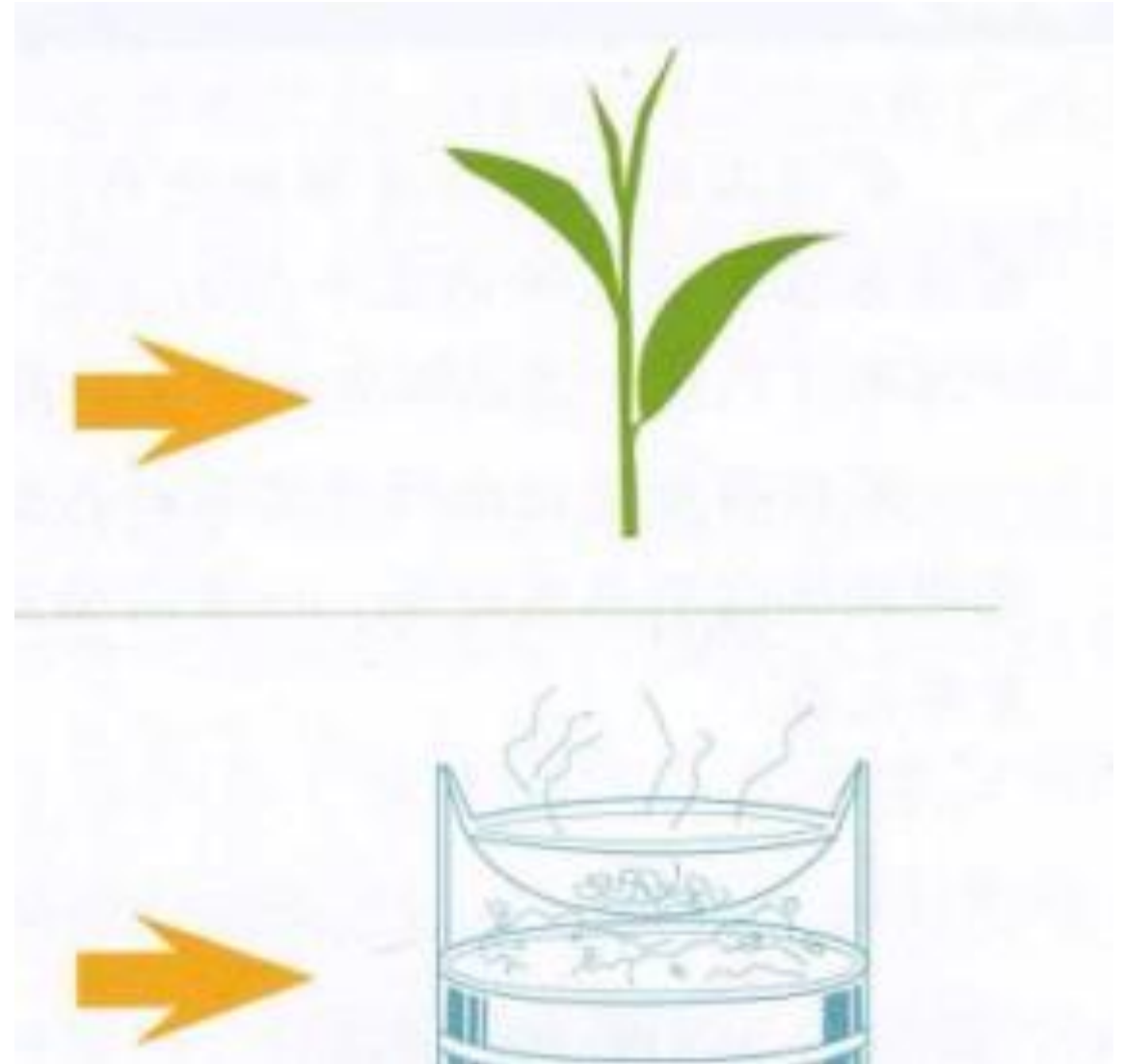


# 『다경(茶經)』 의 구성

- 일지원 一之源 이지구  
二之具 삼지조 三之造
- 사지기 四之器 오지자  
五之煮 육지음 六之飲
- 칠지사 七之事 팔지출  
八之出 구지략 九之略
- 십지도 十之圖

# 『다경(茶經)』의 병차 제다법

- **맑게 갠 구름 없는(청-晴)**
  - 1. 따서(채-採) : 첫잎 따기 음력 2~4월 중에 맑게 갠 구름없는 날
  - 2. 찌고(증-蒸) : 시루에 넣어 찌다.
  - 3. 찜고(도-搗) : 절구에 넣어 찜는다.
  - 4. 두드리고(박-拍) : 틀에 넣어 여러 모양으로 짚어 낸다.
  - 5. 불에 쪄고(배-焙) : 서늘하게 식힌 후 흥배(烘焙)로 건조 시킨다.
  - 6. 뚫어 꿰고(천-穿) : 일정한 무게를 달아 꿰미에 꿰는다.
  - 7. 밀봉해서(봉-封) : 보관 할 때 습기가 차지 않게 속성통에 저장 보관 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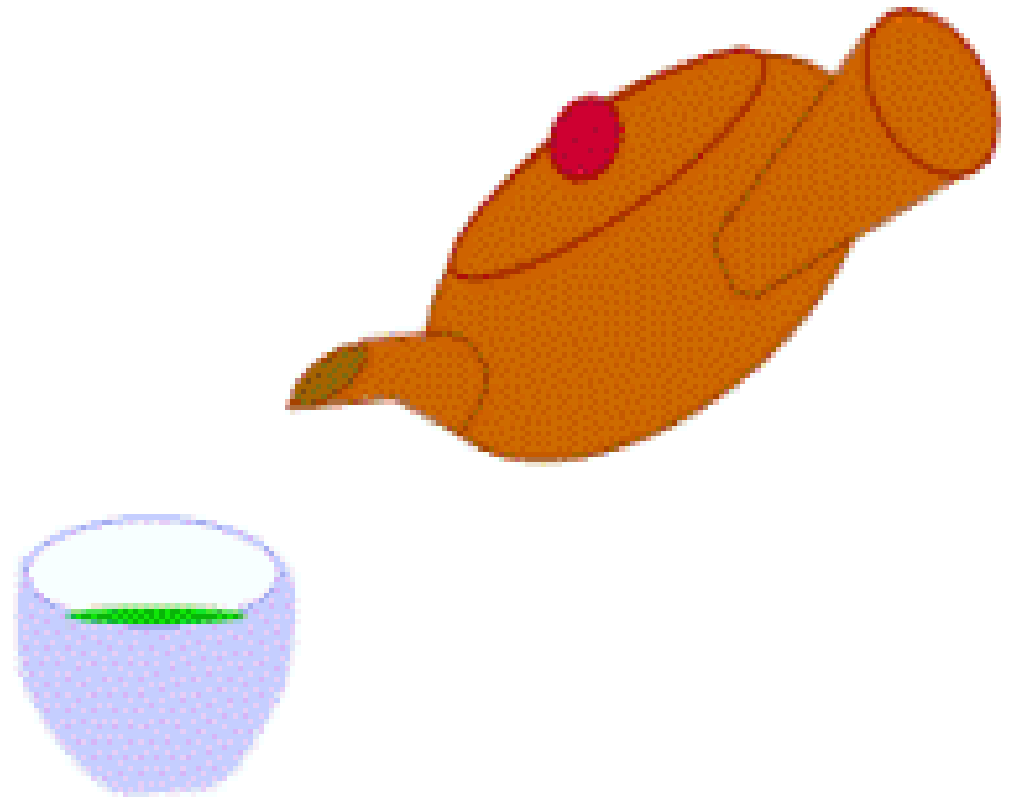
## 5. 일본의 다성 센리큐



- 
- **센 리큐(千利休, 1522~1591)는**
  - **일본다도를 정립한 사람.**
  - **와비차(わび茶, 草庵の茶) 전통의 원조 (다조茶祖)**
  - **조화와 존경, 맑음과 부동심을**
  - **의미하는 화경청적(和敬清寂)의 정신을**
  - **강조하여 차마시는 것을 단순한 마시는 행위에서**
  -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다도를**
  - **만든 사람이다.**

- 
- 센리큐는 오늘날 오사카 지방인 사카이에서 태어났으며
  - 어릴적 이름은 '요시로'였다. 58세때 오다 노부나가의 다도
  - 스승이 되었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는 도요토미히데요시의
  - 다도 선생이 되었다. 그는 특히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총애를
  - 받았으며 그를 위해 크고 작은 다도회를 열었다.
- 
- 이후 도요토미히데요시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자결을 명 받
  - 아 1591 2월 28일, 주라다이에서 할복하였다.
- 
-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일본다도는 17세기를 거쳐 자손들과
  -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며 귀족층과 일본 중산계급에도 널리
  - 보급되게 된다.

- **와 비 (わび)**
- **센리큐는 간소하고 차분한 일본의 미의식인 와비(侘び)의 개념을 정립.**
- 그의 **와비(侘び)**를 구현하기 위해 다도는 작은 족자 하나와 꽃 한 송이 꽂힌 꽃병 이외엔 아무 장식이 없는 작고 수수한 다다미 2장짜리 다실과 또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다기들을 가지고 행하는 문화적 행위였다.
- 센리큐는 이러한 미의식 추구를 바탕으로 차 달이기의 의례적인 측면, 다회의 진행순서, 회석요리 등을 양식화하여 다도를 확립한다.



## 센리큐 정신

‘여름에는 차실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엔 차실을 따듯하게 하며 찻  
물이 잘 끓게 연료를 넣고 차는 맛  
있게 우려내는 것이야말로 차정신  
의 비결”

##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

‘물을 길고, 땀감을 하고, 물을  
끓이고, 차를 다르고, 부처께 올  
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마  
시고, 삽화, 분향하는 것 모두가  
불법을 수행하는 행위인 것’

1. 다도정신 : 화경청적(和敬清寂)
2. 다도의 근본이념 : 와비 (わび)



센리큐

## 6.립톤백작



- 립톤 시트의 주인공인 토마스 립톤(Thomas Lipton, 1848~1931)은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1890년 스리랑카 캔디(Kandy)에서 차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와 실론차(Ceylon Tea)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리랑카와 인연을 맺게 된다. 립톤 경은 담배 파이프를 물고 이곳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하여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하프탈랜의 해발 1,900m에 이르는 가파른 산 위에 '립톤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넓은 차밭과 함께 함반토타 항구(Hambanthota Habor)가 보이는 남쪽 해안을 비롯한 산과 호수들이 흰히 보이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기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출처 : 시니어매일(<http://www.seniormaeil.com>)

# 스리랑카의 차문화

-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공식 이름은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여 실론(Ceylon)이라 칭하기도 했다. 수도는 콜롬보(Colombo)이다.
- 1860년 스리랑카 홍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근처의 룰레콘데라(Loolecondera) 다원에 아삼 차의 씨앗을 심어 제대로 된 홍차를 재배 하였다.

세계 차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스리랑카는  
고급 홍차인 실론 티가 생산 되는 곳.

1824년 영국 장교 R. Bruce가 인도 아쌈(Assam)의 사디야  
(Sadiya)지방에서 차나무 발견 후 1834년에 '차 위원회'를 설립한 후  
스리랑카에도 차나무를 옮겨 심었다.

# 스리랑카 차의 종류

- 1)하이 그론(high-grown)-누와라엘리야, 우바
- 누와라엘리야, 우바, 딴불라의 12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실론의 가장 좋은 차이며 높은 고도의 낮은 온도로 인해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면서 차잎에 향을 농축하기 때문이다. 누와라엘리야는 꽃향기와 깔끔한 황금색 수색으로 가벼우면서도 농축된 맛에서 오는 부드럽고 우아한 민트 향이 특징이다.

## 2)미드 그론 티-딴불라

- 600~1200미터의 미드 그론(mid-grown) 지역인 캔디에서 생산되는
- 미드 그론 티는 향이 풍부하고 적당한 강도가 장점이다. 미드 그
- 룬의 대표인 딴불라는 실론차 중에서 가장 깊은 전통을 지녔으며
- 우리면 깨끗하고 강하고 분명한 향, 풍부한 풀 바디의 맛이다.

3)로 그론 티-

GALLE DISTRICT OP1,RATNAPURA 오렌지 페코(OP)

- 루후나에서 생산되는 로 그론 티는 대체로 600미터 이하로
- 섬의 서남쪽 지역, 즉 라트나푸라로부터 갈레 사이에서 재배된다.
- 스리랑카의 생산량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섬세함이나 깔끔함과 같은 고지대 특유의 맛은 없지만 적당한 강도와 무게감으로 입안 가득 바디감을 주는 것이 매력이다.

古典水墨风格

# 맹사성

- 01 누구인가? 맹사성
- 02 맹사성의 유명일화(2가지)
- 03 맹사성이 차로 배운 인생
- 04 다양한 효능을 지닌 차



맹사성(孟思誠)  
충남 온양 출생  
고려말에서 조선초  
기에 문신으로 활동.



### 1386년(우왕12)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되었다. 이어 전의시승-기거랑-사인-우헌납 등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수원 판관이 되었다가 다시 내직으로 내사사인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때 예조의랑이 된 이래, 정종 때 간의우산기상시-간의좌산기상시가 되었다. 태종 초에 좌사간의대부 동부대언-이조참의를 두루 역임하였다.

### 1407년(태종7)

예문관제학이 되어, 전표사로 명나라에가는 세자를 시종관으로서 수행하여 다녀왔다.

### 1408년

사헌부대사헌이 되어 지평 박안신과 함께 평양군 조대림(태종의 딸 경정공주의 부군)을 왕에게 보고 하지 않고 잡아다가 고문하였다. 이 일로 태종의 큰 노여움을 사 처형될 뻔했으나 영의정 성석린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 1411년

다시 기용되어 판충주목사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예조에서 관습도감제조인 그가 음률에 정통하므로 선왕의 음악을 복구하기 위하여 서울에 머물게 하여 바른 음악을 가르치도록 건의하였다. 그 이듬해에도 그가 풍해도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영의정 하륜이 음악에 밝은 그를 서울에 머물게 하여 악공을 가르치도록 아뢰었다.

⋮

⋮

⋮

요약 : 고려 말 조선 초의 재상.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 때 이조 판서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였고 우의정에 올랐다. 《태종실록》을 감수, 좌의정이 되고 《팔도지리지》를 찬진하였다. 조선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음률(音律)에도 밝아 향악(鄉樂)을 정리하고 악기도 만들었다. 또 청백리로 기록되고, 효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작품에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가 있다.

点击此处更换文本58pic.com点击此处更换文本58pic.com





# 비가 새는 초라한 집에서

맹사성일화

오?

하면호강아니

수나야그에비

아치로서부끄럽

면나라의벼슬

람들생각을하

지아오?그런사

이얼마나많이

갖지못한백성

오 이런집조차

허허 그런말마



# 맹사성의 흑기총

맹사성의 흑기총

깨하였다.

끼며 평생을함

를 수족처럼아

그 후 고불의소

타나지않았다.

했다. 주인이나

고 극진히 간호

을 썬어다 먹이

집으로 가 소죽

해 있었다. 얼레

검은 소가 탈진

가 가까이 가보니



#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스님  
녹차나 한 잔 하고 가시죠.



맹사성  
(못이기는척 자리에 앉는다.)



스님  
(맹사성의 찻잔에 차를 넘치도록 따른다.)



맹사성  
(소리치며)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넘치는 잔에 차를 따른다. 그리고선 화나난 맹사성을 물끄러미 본다.)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을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맹사성  
(스님의 팩트폭행에 창피해 황급히 방문을 열고나가다 문틀에 세계 부딪힌다.)



스님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넘치면 모자람 만 못하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